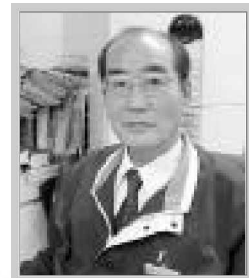


잊혀진 그대를 위한 레퀴엠



나 경 수
전기제철PL 상담센터장
ksrha@esak.or.kr

밭입니다. 고요한 밤입니다. 깊은 밤입니다. 밤은 말이 없고 고요해서 좋습니다. 조용하고 괴롭고. 어떤 때는 무서움도 느껴 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좋습니다. 당신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푸근해 집니다. 왜 모르겠습니다.

생각이나는군요. 톨스토이(A.K.Tolstoi)의 소설로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幼年時代 少年時代 青年時代)》가 있습니다.

1852~1857년의 작품으로 톨스토이 초기의 자전적(自傳的) 색채가 강한 소설로서, 3부작인데, 그 영향과정이 여실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시대를 보면, 그가 열마나 의식(自意識)의 충만, 아니 과잉에 고민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심리 묘사도 특한 리얼리즘을 취하고 있음은 엿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사방이 조용합니다. 아내도요 합니다. 당신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일입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 주십시오. 유령(幽靈)이어서라도 제게와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 생각이나는군요. 《유령(Gengangere)》은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헨리크 إب센(H.Ibsen)이 지은 3막짜리 희곡입니다. 1881년 작으로 전작(前作) 《인형의 집》에 계속되는 일종의 사회극의 계열입니다.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라는 시민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습관과 의무

의 사슬을 무참히 버린 것 같아 버리고 과감히 가정을 버립니다. 하지만, 의무와 습관이 명하는 대로 집안에 만발박혀 있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남을 것인가 하는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유령》의 주인공 어빙 부인입니다.

미망인이 되어 망부(亡夫)의 사회적 명성을 부질없이 가슴에 묻어 안고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어빙 부인(夫人) 곁으로, 파리에 수학하고 있던 자식 오스웰드가 돌아옵니다.

그는 사회적 명성에 반(反)해서 실제적으로는 방탕과 도락(道樂) 생활을 기고 있었던 아버지의 성명을 이어 받아 육체적 과몰자(過몰者)로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는 그 자식을 부친의 유령이라고 보게 됩니다.

머리가 완전히 돌아서 <태양을, 태양을 주세요>라고 외치는 비참한 아들에게 어머니는 스스로 의손으로 약을 줌으로써 차라리 죽게 하는 것만이 그녀가 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게 됩니다.

기망과 허위로 가득 찬 결혼 생활로부터 태어났던 비극을 유전(遺傳) 문제 없이 기억은 일종의 사회적 문제극으로서 사회 초의 격조 높은 희곡 문학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대중적인 기와그 성공을 가져다준 기념비적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이 작품이 상연할 때마다 객체 각종의 사회적 비난의 소리가 높았을 정도이며, 그 묘출(描出)이 적확(的確)하고, 사회(社會) 비판이 여하히 철저하게 되었는가는 한 가지 일로서도 쉽게 알게 됩니다.

아직도 길은 밤입니다. 주위가 조용하니 잠님이 들지 않아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따름다운 내용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과 나(我) 관계도 그럴 뿐이지요. 내가 항상 읽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정소설(柳綠傳)입니다. 아깝게 도자(陶器)와 연대는 지금까지 도미상입니다.

정좌랑(鄭佐郎)과 생유록(生柳)과의 사랑을 묘사한 소설로, 양인이 백년 가약을 맺은 지 얼마 안 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병자호란(仁祖) 14년(1637년) 12월에 청(靑)나라가 우리나라에 침공해 온 전쟁을 말하지요. 유록(柳)을 불러다가 압록강에서 유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하였는데, 임진왜란(壬辰倭亂) 순사 한계월향(韓桂月香)에게 구출되었습니다.

그 후 여승에게 위탁하다가 정공을 만나러 상경도중에 또 불량배(不量輩)에게 쫓겨 청천강(淸天江)에 그만 또 다시 투신하고 맙니다. 이때 정공은 유록을 찾아 관서(關西)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유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미 자살한 줄 알고 사당을 지어 제사지내다가 계월향의 안내로 청천강에 다다라 죽은 줄만 알았던 유록을 구출하여 상경한 뒤에 의주부사가 되어 여생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똑똑한(聰明) 국의 세익스피어(Seeyespyer)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지요. 인생도 젊어서 아무리고 생을 해도 만년(萬年)이 좋아야 하지 않아요.

미국의 극작가 윌리엄스(Tennessee Williams)의 출

세작(出世作)이 된 2막 짜리 희곡이 《유리동물원》(The Glass Menagerie)입니다. 1945년에 뉴욕에서 초연(初演)되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불황(不況) 시대에 세인트루이스(St. Louis)의 값싼 아파트를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극도로 내성적이고 사교성이 없는 절름발이 딸 로라와 구두공장에 서일하며 틈틈이 시를 쓰고 선원 생활을 동경하는 착한 동생 톰. 각자의 자화상과 과거의 화려했던 꿈을 회상하며 애들에 게 무리한 기대를 거는 어머니 아만다와의 세 식구(家)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家)에 대한 실과도 저(低)대응할 수 없는 1가(家)가 서서히 무너져 이산(離散)해 가는 참담한 과정(過程)을 이야기를 곁한 톰의 회상(회상) 형태로 풀어갑니다. 인물의 심리의 음영(陰影)을 비추어 내어서 정적(絞情的)으로 찬찬히 묘사하여 갑니다.

제명(題名)은 딸 로라가 애완(愛玩)하는 유리 세공의 동물인형을 지칭하며, 아름다우나 무(無)로 고(高)가 없는 무지렁이 로라의 희미한 세계를 상징합니다.

밖에는 어느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巨)벽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신(精神)은 히려 또 렷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새(새) 짓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자)고 있습니까? 저(저)비 소리를 듣고 있겠지요. 아(아)닌가요?

불교는 우리가 흔히 석가모니를 개조(改造)하고 자비를 근본(宗旨)으로 하는 종교로 알고 있지요. 유마(維摩)는 석가의 제(제)가 제자(在家弟者)입니다. 유마경(維摩經)에 의하면 유마는 마갈타국(摩竭陀國) 북쪽의 비야리(毘耶離)에 산(山)업(業)에 종사(從事)하였다(환)환합니다. 그가 와병(病) 중에 문(文)병(病)왔던 문수(文殊)와 대승(大乘)반야공(大乘般若空)의 사(事)상을 서로 문답(問答)해서 그곳(處)에 문(文)병(病)왔던 일(一)행(行)을 놀라게 했습니다.

《유마경(大乘)의 심의(深義)를 문답(問答)한 불경(佛經)으로, 경전(經典)의 하나입니다. 많은 경전(經典) 중에서가

장 문장이 깨끗하고 비유(譬喻)가 재미있는 마치 하나의 희곡과 같이 문학작품으로도 높이 인정될 것을 뿐만 아니라 교리(敎理)도 매우 깊습니다. 시인이나 학자들도 이 경을 읽고 그 후부터 불교를 믿었던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경은 대승(大乘)을 논한 것인데 유마거사(維摩居士)의 통력(神通力)으로 병을 가장하고 문병하러 오는 사람에게 대승을 설하는 것입니다. 특수문수보살(文殊菩薩)과 같은 장면은 가히 이경의 절정(climax)입니다.

나는 항상 아름다움(美)을 인생의 유일(唯一)한 목적으로 보는 예술상의 태도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어떤 사람은 유미주의(唯美主義)라고 하며 또 누구는 탐미주의(耽美主義)라고 합니다.

광의로는 일종의 세계관 또는 인생관으로서 미적향수(享受)와 그 형성(形成)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입장입니다. 이광의의 유미주의는 이미 낭만파의 시인 셸링(F.W. Schelling)에게서 엿보이며, 젊은 시절의 니체(F. Nietzsche)도 그의 세계에서 미적 현상으로만 시인되며 예술가가 최고의 인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상의 입장으로서 유미주의는 미의 창조를 예술의 유일무상(唯一無上)의 목적으로서 굳게 추구하는 창작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흔히 <예술을 위한 예술>의 한 지맥으로서 19세기 후반에 나타난 문예사조의 영향이 이렇게 칭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미국의 시인이며 단편소설가 포(Edgar A. Poe : 1809~1849)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시인으로 상징파의 선구자 보들레르(B. C. Baudelaire : 1821~1867)에 의하여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페이터(W. H. Pater)를 선조로 라파엘로 전파(Raffaello 前派)에서 시작하여 오스카와일드(Oscar Wilde)에 이르러 극성기를 맞아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런 유미주의자들(主義者)은 모두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한결 같이 공통된 특색을 보면, 첫째로 정신이나 심정보다는 감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작품의 내용보다도 형식이 나기교를 중요시하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자연과 인생에서 탈피하여 예술이라는 독자적인 세계를 창조하고, 사실적인 것을 배척하며 도리허공상속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점입니다.

셋째로는 비미적(非美的)이라 합니다. 특히 윤리적 가치의 기준을 초월한 미의 실현을 도하며, 때로는 악(惡)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를 추구하는데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예술상의 경향이 실생활 속에서 전을 잡고 그 영향을 미칠 때, 이는 개인주의나 귀족주의로 바뀌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른바 댄디(Dandy)임을 이상으로 하고 생활의 미화(美化)를 뒤쫓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Fr. Brie)는 《제9세기의 문학에 있어서의 미적 세계관: 1921》으로 이러한 문예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만(R. Hamann)은 《생활과 예술에 있어서의 인상(印象)주의 906》에서 광의의 인상주의의 일면으로서 유미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20년대에 발간한 문예지로 주로 낭만주의파의 작품을 발표하던 잡지 《백조(白潮)》를 중심으로 한 젊은 문인들이 한 때 이런 경향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적이 좋았지요.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목마(木馬)를 타고 놀던 때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한자(漢字)를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책으로 《유합(類合)》이 있습니다. 한문자에 정음으로 뜻과 음을 단 책입니다. 유합이 란 유취(類聚)나 마찬가지로, 같은 부류의 사물을 모으거나, 또는 같은 부류끼리 모임을 뜻합니다. 성종(成宗) 때 거정(徐居正)이 지었다고는 하나 확실하지 않고, 《천자문(千字

文)이나《훈몽자회(訓蒙字會)》내 용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이를언해한사람은지금은알 수 없고, 하여튼 《훈몽자회》와 함께 고어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아이들은어린아이. 아자(兒子)인 대한자로는동(童). 아(兒). 해(孩)입니다. 우리속담에 아이와 늙은이는피는데로간다>고하지요. 사랑하고돌보아주는 데로따라감은사람의상정이나. 특히어린아이와 늙은이는그것이심하다느말입니다. 우상. 그리워하거나존경하는대상인아이돌(idol)과는일맥상통하지요.

프랑스의작가라디게(R.Radiguet)가 쓴 소설인데, 1919년 작가가16세 되던때부터쓰기시작했다고하지만출판된것은1923년이었다고합니다. 이것야바로 유명한 《육체(肉體)악마(惡魔)(Le Diable au Corps)입니다. 전에영화로우리나라에서개봉했습니다.

16세의 고교생(高校生) 프랑스와19세의 유부녀(有夫女) 마루트와약속적인연애이야기입니다. 마루트는남편 작크에대하여물론약혼기에는일종의 희미한애정을품고있었으나. 전쟁때문에약혼기를너무오래끝은것이탈이었습니다.

애정은점차식어갔고결혼했을때에는이미애정은물 건너가서멀리가 버리고그리고이미사랑을잃고있었습니다.

그 마음의빈 공간을타고서소년의사랑이스며들어갑니다. 이겁쟁이소년은사랑영취되자갑자기 까다로운에고이스트가되어버립니다. 이로인해불행한마루트는그로 말미암아고민하던나머지끝내는병으로쓰러집니다.

전쟁이라는허무맹랑하고이상한분위기속에서펼쳐지는이 청춘이야기에는자전적(自傳的) 요소가느정도가미되었다고합니다.

하지만, 작자는결코자기번호를하려고하지않고

소년에게청년이되려고하는과도기의혼(魂)을차가운 눈초리로응시하며가차없이날카로운칼로해부(解剖)하였습니다.

무자비(無慈悲)하고몰인정하고몰염치한것이이 세상입니다. 우리위에는몰분수(沒分數)한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말처럼우리는모순과부조리속에살고 있습니다. 아무리몸부림쳐도여기서헤어나지못합니다. 이제비가뭇어가고있는것 같습니다. 빗방울소리가가떨어뜨림입니다.

희미한등불아래역사는말없이흘렀습니다. 요사이저도편안하지못합니다. 불안감(不安感)에주위예항시감들고있습니다. 아마도우리사회의질서가바로잡히지않아뒤숭숭함도한 몫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매사에안심이되지않아편안하지못한마음입니다. 누군가가불안심(不安心)은안병의근원이라했습니다. 불안기외의. 절망. 허무그뿐인가요 퇴폐등을반영할문학이우리시대에도있었지요. 이러한소위 불안의문학(literature of anxiety)은전후(戰後) 따위에흔히있는현상으로현대문학의중요한성격을이루고있음은흔지의사실입니다.

지금막비가뭇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는밤이희부영게되는군요. 저도선악따위의행위나사상이그 여세(餘勢)를제 마음속에머무르게해야겠습니다. 이것을불교에서는유식하게훈습(薰習)이라하여불법(佛法)으로마음을닦아감입니다.

오늘은여기까지입니다. 저도이제는잠을 자야겠습니다.

| 기술포존2007. 3